

■ 산지 한우가격 안정세 유지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차원의 적절한 출하조절이 이뤄지면서 한우의 산지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7월 농협중앙회 집계 산지한우가격에 따르면 지난 21일 암소6백kg은 5백10만6천원으로 지난 6월 평균 암소 5백1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수소(6백kg 기준)는 4백12만4천원으로 지난달 평균 4백만3천원보다 마리당 1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한달사이 30만원 이상 곤두박질치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 같은 산지가격의 빠른 안정세와 동시에 등급별 가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의 경우 평균 경락가격이 1만4천2백76원/kg이고 1등급 평균경락가격이 1만6천3백18원/kg으로 가격차가 kg당 2천42원이다. 반면 21일 현재 기준 평균 경락가격은 1만4천3백20원/kg, 1등급 평균경락가격 1만5천9백66원/kg으로 kg당 1천6백46원으로 가격차가 다소 줄었다.

산지가격의 하락세가 멈춘 것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기가 늦춰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늦어도 6월 중순엔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 수입업자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산 수입물량을 줄여 전체 수입쇠고기의 물량이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한우(특히 2등급 이하)가이 부분을 대신한 것으로 보여진다.

■ 충족못하면 한국땅 밭 못붙여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7월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산 쇠고기는 한 점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축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장관은 이날 농축산관련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쇠고기 수입 조건을 놓고 미국의 주장은 주장이고, 우리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 톨도 가져올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일부에서 한·미 FTA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음을 못 박았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친서를 통해 전국의 농축산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미국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입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수출 작업장도 우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승인 보류한 한 만큼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미국 쇠고기는 이 땅에 밭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신속하게 농업단체장들에게 공개하고 토의하겠다고며 투명하고 열린 협상을 약속했다.

■ 재해 복구비 ‘실효성’ 논란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가축입식비와 축사 시설 복구비는 지원되는 반면 착유기 등 고가의 첨단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고가의 첨단 기자재의 피해를 입고도 착유기와 급이기 등과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하자 크게 격분하고 있다. 더욱이 젖소의 경우는 능력에 따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라 젓소가격도 천차만별인데다 원유생산량도 차이가 남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단순히 시가에 대한 보상만을 해 주 있는데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예산당국에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예산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첨단기자재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 한국형 젓소종모우 새혈통 2두 '주목'

유량과 유지량 전달 능력이 탁월한 한국형 젓소종모우 '리맨(H-991)' 과 '자스펜(H-988)'이 최근 선발돼 앞으로 이에 대한 경제형질을 개량하려는 농가로부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0일 농협중앙회 젓소개량부(부장 오규락)에 따르면 가축개량협의회 젓소분과위원회에서 최근 선발한 한국형 젓소종모우 리맨과 자스펜은 유전능력이 우수함은 물론 국내의 새로운 혈통인데다 한국형 종모우 신뢰도까지 향상되어 1석3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젓소종모우를 선발하는데 실무를 맡은 젓소개량부 조주현박사는 "리맨은 딸소 확보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신뢰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유량 71%·체형 66%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정액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소 부루세라병 단속 '솔방망이'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부정 유통되거나 수기로 임의 작성되어 거래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에는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증명서가 가축시장의 경우 직원에 의해서만 확인이 이뤄질 뿐이며 문전 거래의 경우에는 농가가 수기로 임의 작성해 주거나 아예 검사증명서가 없이 거래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무방비인 상황이라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살처분 보상비가 8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이같은 검사증명서에 대한 부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검사증명서가 부정 유통되거나 부정한 증명서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것은 브루세라에 대한 혈청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을 받게 되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검사증명서가 없는 경우 소의 가격이 5~10% 정도 싸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낙농진흥회 분석 상반기 원유 생산량 줄었다

올 상반기 전국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평균 6천1백67톤을 생산해 전년동기 생산량 대비 2.2%감소했다.

낙농진흥회가 분석한 올해 원유수급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진흥회는 3%, 일반유 업체는 4.0% 감소한 반면 서울우유의 경우 1.1%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유 생산량 감소의 주요인으로는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집유주체별로 계속된 원유생산감축정책 시행으로 50두 미만의 영세낙농가가 쿼터 매각

후 폐업이 진행되면서 폐업농가가 사육하던 저능력우의 도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쿼터 매각시 기존 쿼터의 20%부분을 매몰 처리함으로써 총량쿼터가 감소한 부분도 전체적인 생산량 감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분유재고는 1만톤 수준으로 여전히 과잉상태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4월이후 감소추세로 반전, 6월 말 분유재고는 전년동기 재고량 1만1천12톤대비 14.3% 감소한 9천4백42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수기 분유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분유수입량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도 하반기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 1백8만8천톤보다 2만9천톤 감소한 105만9천톤으로 전망된다. 낙농진흥회 수급팀에 따르면 상반기 생산량 감소율 2.2%보다 0.4%p 추가 감소한 2.6%정도의 원유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06년 하반기 전국 유제품 소비 전망은 백색 가공시유 소비량은 원유투입량 기준으로 전년동기 76만톤보다 35톤 감소한 72만5천톤을 전망했다. 상반기 소비 감소율 6.0%보다는 다소 둔화된 4.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공유제품 소비량은 치즈류 및 발효유의 판매성장에 힘입어 '06년도 소비량은 치즈류 및 발효유의 판매 성장에 힘입어 '06년도 소비량이 전년대비 23.8%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원유잉여량은 전지·탈지분유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원유량을 기준으로 전년 32만3천톤보다 57톤 감소한 26만6천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집중호우도 원유생산량 '발목'

7월 중 장마후 원유생산량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7개 집유업체의 7월 14일 이후 5일간의 원유생산량이 5일전과 비교해 3.7%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유주체별 장마전후 원유생산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장마전 1천5백46톤에서 1천4백81톤으로

4.2%감소했으며 B사는 1천8백86톤에서 1천8백37톤으로 2.6%, C사는 1백19톤에서 1백14톤으로 4.7%, D사는 1백68톤에서 1백58톤으로 5.6%, E사는 2백23톤으로 5.5% F사는 1백80톤에서 1백70톤, G사는 2백61톤에서 2백49톤으로 4.7%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의 주요인은 장마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젖소의 더위스트레스(스트레스 지수78이상)가 증가됐으며 특히 장미기간이 장기화 됨에따라 사료내 곰팡이균의 증식으로 사료의 기호성이 떨어져 사료섭취율의 감소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쇠고기 수입량 7천톤 감소

미산 쇠고기 수입보류의 영향으로 올 초 쇠고기 수입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천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까지의 쇠고기 수입물량은 4만7천톤으로 지난해 동기상 수입물량 5만4천톤 대비 12.6% 정도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호주 3만2천톤, 뉴질랜드 1만4천톤, 멕시코 1천톤 순이다. 수입물량이 이같이 감소한 원인은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시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당초 올해 초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산 쇠고기가 BSE발생과 수출작업장 문제로 수입재개 시점이 늦춰지면서 미리 미국 측과 계약을 했던 수입업자들의 발목을 잡아 전체 수입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영향으로 현재 호주나 뉴질랜드 산 수입육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많은 수입업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어 7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산의 수입재개를 기점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빠르게 평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 '유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12일 비공식적제로 '식품안전처' 설립을 놓고 논의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여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난색을 표함에 따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명숙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처'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의 세 번째 공식안건으로 '식품안전처' 설립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긴급 현안인 태풍 피해 대책에 밀려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가 비공식 의제로 '식품안전처' 설립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여당 의원들이 복지위와 농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는 것. 특히 이 자리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농해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점"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식품안전처' 설립에 반대의견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축산·수의업계에서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통한 식품행정체계 개편은 대표적인 탁상공론의 전형"임을 지적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등 '식품안전처' 설립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상반기 축산물 수입량 쇠고기·닭고기 늘고 돼지고기·혼합분유 감소

올 상반기 수입 축산물량 중 쇠고기, 닭고기는 증가된 반면 돼지고기, 혼합분유는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7만773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인 5205톤이 늘었다. 닭고기도 3만1245톤으로 47.3%인 1만26톤이 증가됐다. 반면 돼지고기와 혼합분유 수입량은 감소됐다. 돼지고기는 10만353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5921톤에 비해 2.3% 줄었다. 혼합분유도 1만420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66톤에 비해 20.5% 감소됐다.

닭 계열업체 과징금 부과 논란

닭 계열업체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를 반대해 온 축산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하림 12억4600만원, 마니커 5억5700만원, 동우 5억8000만원, 체리부로 2억8400만원 등 닭 계열업체 4곳에 총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 직후부터 2005년까지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공급가격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한 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형석 한국계육협회장은 "당초 협회와 16개 업체에 180억원을 부과하려던 방침에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이 고려돼 많이 완화됐다"며 "아직 업체간 항고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해당업체가 별도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발기금 재원확대 시급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따른 농축산업 재정 지원 강화 일환으로 경마세제 개선을 통한 재

원 확대가 요구된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익) 주최로 열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경마산업 세제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교수는 "경마 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면서 그것으로 발생하는 여유분을 특별소비세나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흡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건전경마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해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사사회 특별출연금에 계속감소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 마사사회 납부한 지방세는 8248억원이나 농어촌사업 재원은 1875억원으로 지방세의 22.7%에 불과하다. 특히 마사회 출연금은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96%를 담당하지만 매년 감소추세로 2002년 1834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05년에는 67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정익 위원장은 "마사회가 설립취치대로 농축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마산업 세제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 인하를 통해 축산발전기금 확충과 농어촌 복지 증진 및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료값 인상 움직임 ... 농가 "안돼"

사료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료업계는 최근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경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지역 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료의 40%를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8월까지의 사전에 구매한 원료로 소진할 수 있지

만 9월부터는 상승한 옥수수가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7월 17일 현재 옥수수가격은 톤당 156.38달러(CBOT기준)로 올 1월 평균가격 139.79달러보다 11.8% 상승했다. A사료업체 관계자는 "국제원유가격과 국내 경유가격의 상승으로 운임비도 급증했다"면서 "원료가격 상승 등 국외상황이 악화돼 현재 사료가격과 관련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료업체들의 사료가격인상 검토가 알려지자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톱밥값 급등, 축산농 '비상'

톱밥가격의 급증으로 인한 농가들의 톱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가축들 축사의 바닥에 깔리는 톱밥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농가들의 경영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톱밥은 축사의 바닥재로 사용되면서 보온 효과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목재소 및 제재소 운영이 위축되면서 부산물인 톱밥생산량이 크게 감소,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수년 전까지 분뇨를 주면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던 톱밥가격이 안성지역의 경우 50만원선(5톤 기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장에서는 제 때 톱밥을 교환해주지 못해 바닥이 분뇨로 가득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안성지역의 한우농가인 윤모씨는 "예전에는 소똥과 톱밥의 교환이 가능했었다"면서 "한 차에 50만원이나 주고 겨우 톱밥을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대체 원료 등을 찾는데 고심하는 실정이다. 경기 이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임모씨는 "최근 5톤트럭을 40만원에 받는 등 가격이 급증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kg당 185~200원에 불과한 수입 톱밥과 야자박을 샘플로 받아본 결과 발효가 빨리될 것으로 판단돼 이를 사용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발췌 :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